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 1255호
8월 24일
2024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조용묵 목사 “통일지상(統一至上)주의, 감상(感傷)주의, 온정(溫情)주의, 모험(冒險)주의 경계해야”

한기총 주최 8.15 광복절 79주년 기념예배 “광복의 은혜에 감사”...“광복의 은총을 더욱 복되게”



조용묵 목사
한기총 원로자문회의 고문



정서영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2024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8.15 광복절 기념예배’가 지난 8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은혜와진리교회(당회장 조용묵 목사) 안양대성전에서 열려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의 인도로, 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기념사가 있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기념사에서 “우리는 일본의 강력한 제국주의 총칼 앞에서 독립을 향한 열망을 놓치지 않았으며, 3.1 운동과 같은 비폭력 저항운동과 우리의 말과 글, 정신을 지키고 이어가고자 노력했다. 또 대외적으로 외교권을 되찾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와 활동들을 전개했다”고 평했다.

이어 “비록 일본의 패전으로 뜻밖의 독립을 맞게 됐지만, 억압에 맞서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광복 이후 6.25 전쟁이라는 처참한 상황까지 딛고 일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도약,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변화나 결과는 갑자기 찾아오며,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여러 형태의 억압과 폭력이 존재한다. 침묵하지 말고, 바른 방향으로 개혁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억압된 현실에 안주한다면, 해방되도 여전히 과거의 억압 속에 혹은

또 다른 억압이나 압제에 갇힐 수밖에 없다. 한기총은 상존하는 폭력과 압제에 저항하며, 자유와 평화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회장 함동근 목사의 대표기도, 공동회장 조윤희 목사의 성경봉독,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베다니성가대의 찬양, 한기총 원로자문회의 고문 조용묵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용묵 목사는 시 126:1-6 말씀을 본문으로 “광복의 은총을 더욱 복되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공포된 한일합방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 치하에서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권과 국토가 유린되고 착취당했다. 국민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온갖 압박과 수모를 견디어야 했다. 독립투사 선열들이 생명을 바치며 애썼지만 국권을 회복할 가망은 없었다.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려면 일본제국을 대항하여 물리칠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놀랍게도 예기치 못한 해방이 갑자기 성큼 다가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것이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다. 미국에 의하여 얻게 된 해방

이래 자유다. 미국이 일본보다 힘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 결정적인 힘은 원자폭탄이었다.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며 많은 국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런데 후진선 이북은 일제치하에서는 자유를 얻었으나 공산주의 독재치하에 놓이게 되어 거주와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감시받으며 살고 있다. 인권유린에 신음하고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이한 독재통제사회다”라고 했다.

조 목사는 또 “6.25전쟁 정전협정 조인을 한지 7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155마일 휴전선으로 한반도는 허리 잘린 채 두 동강 나 있다. 지금도 군사분계선 주변에는 엄청난 병력과 화력이 집중 배치되어 서로를 겨냥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 양식을 비롯하여 막대한 물자 지원을 하여 왔다. 그뿐 아니라 여러 식재료도 수억 달러의 현금지원을 했더니 그 돈으로 핵폭탄을 개발하고 결국 핵보유국이 되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위협은 더욱 증폭

되었다.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설마>보다 <만약>을 생각해야 한다.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이 함께 경계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뒤 바뀌면 위험천만한 발상과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감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평화, 화해, 일치, 사랑이라는 언어의 유희에 취하면 정의, 진실, 신의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무분별한 온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북한 인민과 북한 당국을 분별하지 못하는 도음의 손길은 피자를 해롭게 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모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국가존립과 국민의 안녕은 실패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염원은 속히 평화통일이 되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은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적화통일을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협박한 말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온갖 방법으로 도발과 테러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북한을 도와서 6.25전쟁을 일으켰던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실상을 우리가 간파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당면한 남북관계나 주변국 그리고 국제정세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복잡다단하다. 우리 정부의 힘만으로 복잡 미묘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와 국제정세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는 역부족이다.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大事)를 행하여 주시면 해결될 수 있다. 79년 전 우리나라의 해방은 기적적으로 다가왔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통일도 그렇게 다가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이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밝히 드러나 있다. 이러한 본을 따라 <한국교회 기도의 날>이 여러 형태와 규모로 시행되어야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솔리스트 정영환, 솔리스트 김성혜 성도의 선창으로 애국가를 제창하였으며 참석자들 모두가 일어나 함께 불렀다. 애국가 제창 후 한기총 공동회장 심하보 목사, 공동회장 최원길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박중

만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으며 공동회장 정창보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곧바로 한기총 총무회 회장 서승원 목사와 부회장 이영구 목사가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이근영 장로의 헌금기도, 수원성전 여호수아성가대의 헌금송, 사회자의 광고 후 참석자 모두가 일어나 광복절 노래를 다 같이 불렀다. 이날 예배는 한기총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애국가 제창 솔리스트 정영환 · 김성혜 성도



안양성전 베다니성가대의 찬양



안양성전 베다니성가대의 찬양



수원성전 여호수아성가대의 헌금송

APAGF 아시아 태평양 총회장 회의 및 아시아태평양 선교지도자 회의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선교를 위해 의견 교환
세계하나님의성회 대륙별, 지역별 새롭게 편성



심종예 목사
국제총회장

APAGF 아시아 태평양 총회장 회의 및 아시아태평양 선교지도자 회의가 지난 7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장 등이 오랜만에 모여 안부를 나누고 실질적인 선교방안과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선교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총회장회의와 분과별(선교, 신학교, 다음세대) 회의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총회장 회의에는 한국(국제총회장 심종예 목사)을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대만, 홍콩, 미얀마, 인도네시아,

아, 캄보디아 총회장들과 각 분과별 리더들이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총회장 회의에서는 세계하나님의성회 대륙별, 지역별로 새로이 편성된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세계하나님의성회 회장 도미니크 목사와 줌을 통해 새로이 편성된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하여 별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총회장 모임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새로 편성된 부분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아시아로 되었으며 이중 북동 아시아 지역(4개국)으로 일본, 북한, 대한민국 기타 중앙아시아(6개국) 북아시아(5개국), 서아시아(8개국), 동남아시아(11개국)로 편성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으며 그



동안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해온 것이 있어 일단 다음 년도에 APAGF로 모여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아직 내년 개최국은 정해지지 않은 채로 회의를 마쳤다. 회의 둘째 날에는 각 나라 총회별 발표가 있었다.

예하성 총회는 지난 5월에 있었던 73차 정기총회와 회의 전 총회로부터 받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메일을 나누고 선교사 목사 안수에 관하여 그리고 혼합주의, 세속주의 반대, 이단 척결 그리고 다음세대인 청소년연합수련회에 관해 비전을 서로 나누었으며 다른 나라 총회 상황을 들으며 세계하나님의성회



프로젝트인 MM33(2033년까지 세계하나님의성회 교회(100만 교회)에 관하여 각국의 입장을 나누고 각국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각 분과별(선교, 신학교, 다음세대) 발표를 총회장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5일-26일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선교

리더들이 참석하여 다음 세대 선교 동원(Mobilized Next Generation)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찬식을 끝으로 모든 회의를 마쳤다.

이번 회의는 필리핀 하나님의성회(PGCAG)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아시아 리더들(총회장)의 나눔과 교제를 통해 더욱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총회와 그리고 선교,

다음세대, 신학교 그리고 세계하나님의성회 프로젝트 MM33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번 회의에서 더욱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를 소개하고 선교의 비전을 나타낼 수 있어 감사했으며 또한 총회를 위해 국제총회장(선교위원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 총회장 김영준 목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했다.

한기총, 사랑의 한끼밥상 나눔 진행

가나안 쉼터, 광야교회에서 급식 및 봉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하 한기총)는 지난 7월 31일(수), 8월 1일(목) 양일간 '사랑의 한끼밥상 나누기'로 노숙인, 독거·무의탁 어르신을 위한 급식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을 비롯하여 김경환 사무총장, 이의현 비서실장, 이현숙 공동회장, 이미숙 공동부회장, 송미현 공동부회장 등 한기총 임직원이 이번 나눔 행사에 함께 했고, 31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가나안 쉼터(이사장 김도진 목사)를 방문하여 기도하고 식사를 제공했으며, 1일에는 서울 영등포 광야교회(담임 임영희 목사)를 찾아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무더운 여름 보양을 위해 삼계탕을 제공하며 배식을 도왔다.

지난 1996년 설립된 가나안 쉼터는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거리로 쫓겨 나온 노숙자들을 보호해 왔다. 노숙인들을 위해 초기에는 응급 보호에 중점을 뒀으나 차츰 자활에 초점을 맞췄고, 현재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직접 배식에 나선 정서영 대표회장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박한 한 끼이지만 또 다



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한 끼일 수 있다"며 "배식 봉사가 어둡고 외진 곳에 소중함 도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인사말을 전한 정서영 대표회장은 "여러분 삶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미현 박사는 설교를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는다. 중요한 건 죽고 난 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라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 곧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모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길, 아픈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공동부회장 이현숙 목사가 대표기도를 드리고, 사무총장 김경환 목사가 광고한 뒤 공동회장 이현숙 목사가 축도했다.

8.15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선물

개혁신교단협, 개신교단협, 세계개혁신교회연 공동 8.15예배



양정섭 목사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대표회장 양정섭 목사)는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 및 (사)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총재 김권현 목사)와 연합하여 지난 8월 14일(수) 서울시 종로구 여전도회관 내 루시키기념관에서 가임교단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제79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연합예배는 양정섭 목사의 사회, 예장합동개혁신교회 총회장 이승권 목사의 대표기도, 개혁신교단협의 특송, 박형렬 목사의 설교, 인사말, 만세 삼창과 축도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형렬 박사는 '은혜 언약의 해방 정체성(렘 31:1-6)'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8.15 해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선물"임을 명시하고 감격스런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결의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직 성경으로 개혁하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며, 일제의 침략적 군국주의는 망상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잘못된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중세교회의 타락에 맞서 목숨을 걸며 개혁에 나선 선구자들과 같이, 우리도 오직 성

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어떤 침략적 야욕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양정섭 박사는 연합단체가 비성경적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뜻을 삼는 개혁신교회의 전통과 복음주의 정신으로 믿음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단체와 교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인사말씀을 전했다.

제45차 미국 그린스보로에서 통일기도회

세기총, "한반도에 자유평화가 오기를...그러나 통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단법인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지난 7월 3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각)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에 위치한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담임 한일철 목사)에서 '제45차 한반도 자유 평화통일 미국 그린스보로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5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그린스보로 기도회는 세기총 평화통일기도위원회가 주관하고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드린 이날 기도회는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기도회의 역사의 취지를 소개하는 영상 상영, 준비위원장 한일철 목사(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담임)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는 대화사를 통해 "에티오피아에서 가진 40차 기도회에는 150명 정도 참석했는데,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그분들에게 큰절을 했다"라고 말하고 "참전용사는 물론 참석자들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며 당시를 회상하면서, "오늘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한반도에 자유 평화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5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황의춘 박사는 단 5:22~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착정된 통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어떻게 할지 기도하고 있다"면서 "세기총이 세계 각지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통일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며 결론은 하나님이 통일하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의전화, '제19회 생명사랑 밤길걷기' 개최

국내 최초 민간 주도의 민·관 협력 참여형 자살예방캠페인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는 대한민국 자살률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 자살예방캠페인 '생명사랑 밤길걷기' (이하 '밤길걷기')를 오는 9월 7일, 8일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가 35.4명에 이른다.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원 외 불과할 뿐 실제 인원은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생명의전화는 국제NGO기구로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심각한 자살 현상을 사회에 알리고 인식개선에 앞장서고자, 매년 세계자살예

방의날(9/10)을 맞이하여 자살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밤길걷기'는 2006년부터 지난 해까지 누적 33만 명의 기부자와 생명을 밝히는 걸음을 함께해왔다. '밤길걷기'는 9월 7일 토요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0대 청소년 자살률인 10만 명당 7.2명에 기인한 '7.2km for 청소년' 코스와 대한민국 평균 하루 자살 사망자 수에 기인한 '35.4km for 대한민국' 코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캠페인 당일 현장에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부스 및 축하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35.4km for 대한민국' 코스는 캠페인 354명이 함께 대한민국의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해질녘부터 동틀 때까지



자 생명을 밝히는 걸음을 실천한다.

목회자유가족 돕기, 24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

22년 동안 937명의 학생들에게 약 12억 원 장학금 지급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회장 김진호 감독)는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지난 8월 6일(화) 오전 11시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가졌다. 이날 42명의 별세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무총장 최우성 목사의 사회로 장호성 장로(대림교회)의 기도, 신은주 사모(영주에덴교회)의 특별언주, 우종철 목사(전남제일교회 원로)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므로(느 2:7~10)'라는 제목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다.

우종철 박사는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안개처럼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기도는 문제의 해결, 문제의 원인을 바로 파악하게 한다. 하나님께 조정을 맞출 때 어려운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크게 보일 줄로 믿는다"라고 설교했다.

또한 장예람, 장예선, 장예원 학생의 특별찬양 후 이범조 목사(아펜젤러인우교회 원로)와 대동화 목사(선교교 총무)가 각각 격려사와 축사로 자리를 빛내고, 회장 김진호 감독이 인사말을 전한 뒤 장학금(대학생 19명 각 200만원, 고등학생 9명 각 100만원, 중학생 3명 각 60만원, 초등학생 9명 각 50만원, 유치원생 2명 각 40만원)을 수여했다.

성수협 창립 기념 학술대회 개최

'차별금지법 저지와 성경적 선교의 세계적 확산' 학술대회

한국교회의 차별금지법 저지와 성경적 선교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학술대회가 성수협(모든 성경의 신적권위 수호운동연합)과 차비아(차별금지법비모알기아카데미) 공동 주최로 오는 8월 20일(화)과 21일(수) 이틀 동안 서울 선릉로 한신인터베리 24 빌딩 지하 2층에서 열렸다.

성수협 창립기념일(8월 20일)에 맞춰 진행된 이 학술대회에는 교계와 시민운동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한동대 김기호 교수와 서울신대 박명동 목사, 범무법인 아이엔에스 조영길 변호사 등이 발제를 맡

았다.

성수협은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교회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저버린 채 동성애와 성전환, 낙태 행위 등을 정당화하는 반성경적 자유주의 신학은 물론 퀴어신학마저 용납했다고 개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지난 18년 이상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운동'을 저지해 왔으며, 이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교파와 교단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 연합해 반성경적 사조를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성수협은 강조했다.

성수협은 앞으로 이 같은 '저지 운동'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야 할 사명과 책임이 한국교회에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고견과 현장 경험 등을 폭넓게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수협은 20일 발기인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취지를 담은 취지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발기인 명단에는 교계 각 교단 목사와 시민운동 지도자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이 두루 망라되어 있다.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 '멘토와의 만남' 진행

전 축구 국가대표 조원희 선수, 특급멘토 나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전 축구 국가대표 조원희 선수가 '꿈꾸는아이들'을 위해 특급 멘토로 나섰다"고 지난 8월 12일(월) 발표했다.

월드비전은 현실의 벽 앞에 아이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2013년부터 '꿈꾸는아이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꿈꾸는아이들 사업은 '결식아동지원사업', '위기가동지원사업', '꿈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월드비전이 발표한 2022년 결식아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꿈에 영향을 주는 인물로 연예인과 방송인을 각각 2순위, 3순위로 꼽았다.



특히 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멘토와의 만남'은 아동들이 평소 동경하는

인물을 직접 만나 꿈에 대한 동기를 얻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얻음으로써 구체적인 꿈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선수는 지난달 18일 월드비전 등 록아동이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꿈꾸는 꿈빈이(가명·11세)를 만났다. 이날 조원희 선수는 꿈빈이와 함께 원포인트 레슨과 1대1 대결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신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꿈빈이의 꿈에 대한 응원과 함께 현실적인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도 가졌다.

굿네이버스-BMW 코리아 미래재단 24 희망학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간 1만 6,300명에게 지원 예정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BMW 코리아 미래재단(이사장 한상운)과 함께 '희망ON학교'를 진행한다고 지난 7월 29일(월)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감을 경험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동권리보장원은 우리나라 15세 아동 중 삶의 만족도가 높은 아동 비율은 2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7%포인트나 낮다고 밝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굿네이버스와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아동의 신체와 마음건강 증진을 목표로 올



새롭게 '희망ON학교'를 출범했다. 희망ON학교는 지난 2012년부터 위기가정아동을 지원한 '희망나눔학교'의 후속 사업으로, 지난 10여 년간 변화된 사회 환경과 다양한 사회

적 요구에 맞추어 진화한 세부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희망ON학교는 기존의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고 신체발달 위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확장해 아동의 마음건강과 행복감 증진을 위해 '내 마음을 피자!'와 '다함께 행복 ON'의 세부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내 마음을 피자!'는 아동의 마음건강에 발맞추어 증진을 위한 마음 돌봄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피자 만드는 과정을 무용 동작 기반의 자기조절 학습과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다함께 행복 ON'은 행복감 증진을 위한 문화·직업·체험활동으로 구성된 아동주도 기획 프로그램이다.

수양회 갖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 전파 다짐

강원지방회

강원지방회(회장 권용덕 목사)는 지난 8월 15일(목) 오전 11시 영월열린교회(담임 유홍열 목사)에서 수양회를 갖고 지방회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박규희 목사(원주생물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성백담 목사(예수사랑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유홍열 목사(열린교회)의 고전 10: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에 기뻐하지 않으신'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



졌다. 설교 후 지방회장 권용덕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진장길 목사(태백성지교회)의 축도로 예배

를 마쳤다. 예배 후 회원들은 교회 인근 냇가에 모여 담소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하나님께 전적 순종, 앞에 있는 홍해를 열리게 하자!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8월 5일(월)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담임 표현자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광우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찬양 인도와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임경영 목사(순복음하늘빛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벨렐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출 14:10-16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앞에 홍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소명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라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절망적인 상



황에 좌절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열어주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의지해야 할 분은 그들이 강한 자로 여겼던 바로가 아니라 더욱 강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다"며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칠 때 전적으로 순종하며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감격의 찬송을 부르자"고 강조

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 개교회와 교역자를 위해 뜨겁게 함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오용득 목사(전리와빛교회)의 헌금기도와 회장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에서 직접 준비한 맛있는 정성스런 점心和 함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동해안 철통경계 일출부대 장병 격려

군선교위원회 말씀과 기도로 위문, 위문품 전달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 군선교국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8월 13일(화)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열대야와 폭염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 삼복더위의 시기에 동해안 철통경계를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경계근무, 교육훈련에 임하며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일출부대 장병들을 위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군선교위원회 일행은 부대장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일출부대의 경계근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받고 너무나 중요한 임무수행에 막강한 군사력과 일당백의 막강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장병들의 애국정신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개했다.

부대 강단에 모인 장병들에게 군선교국장 정석현 목사는 고전 4:2 말씀을 본문으로 '말려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오늘날 정상에 우뚝 서서 사랑을 한결 같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다. 성공에 조건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일이며 최선을 다하는 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와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오늘 모든 장병들은 최

선을 다 하므로 정상에 우뚝 서서 사랑과 사람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했다.

군선교위원회 박순용 목사는 부대장과 장병들을 위해 군목을 위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문제해결 받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정기월례회 개최하고 교단과 지방회 위해 기도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안재봉 목사)는 지난 8월 11일(주일) 오후 4시 순복음비전교회(담임 안재봉 목사)에서 8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광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김경순 목사의 기도, 서기 유진철 목사의 성경봉독, 전임회장 엄하석 목사의 설교, 재무 이동윤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마 16:13-20, 18:15-20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천국의 열쇠는 기도이기에,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또 "행제의



죄가 드러난다면 들추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여 죄에서 돌아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예배를 마친 후 김미정 전도사(드림교회)

를 임명하였으며, 곧바로 정기월례회로 이어져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에 순복음비전교회(담임 안재봉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아산시지도자협의회 제8차 기도회 및 간담회

국가의 안보와 대통령을 위해, 부정선거 대책 마련, 지역 균형발전 위해 기도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

아산시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진동웅 목사)는 제8차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도회 및 간담회를 지난 8월 7일(수) 오전 7시 온양 제일호텔에서 개최하고 균형잡힌 지역발전과 국가의 안보 국민화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

1부 예배는 상임회장 임용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아산시기독교장로회 회장 이종관 장로의 기도, 부회장 한선희 목사의 성경봉독, 상임회장 박노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마 23:25-26 말씀을 본문으로 '청결한 마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속을 깨끗이 하여 겉도 깨끗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 길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광야 생활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속을 정결케 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결한 마음은 진실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도자로서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상임회장 김수홍 목사(아산경찰서 경목실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2부 인사 및 보고회로 이어졌다. 실무회장 이정팔 목사의 사회로 열린 2부 순서에서



는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예하성 전임총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진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적인 정세가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산시기독교지도자와 함께 더욱 기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회원들에게 환영인사를 전했다. 이어 박경귀 아산시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박 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아산시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해 주신 기독교지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다고 전하고 아산시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수출목표 달성 1위로 최고의 도시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도시브랜드평가 전국지자체 광역시 포함 서울, 부산, 대전에 이어 4위로 발전하였으며 인구산업단지 조성으로 10만 명 인구유입을 이루었고 아산만을 중심으로 300만 베이벨리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자문위원 이명수 전 국회의원의 축사, 전 기감 감독 김소은 목사의 격려사, 김영석 국헌 총남도당 아산갑위원장의 국정과 지역동향보고, 상임대표인 총기총연 총회장 박귀환 목사의 총기총연 공지사향 및 인사, 아기연 대표회장 정병환 목사의 아기연 공지사향 보고로 2부 순서를 마쳤다.

3부 기도회는 전 아기연 대표회장 조이철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상임회장 황기식 목사의 '나라와 민족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상임회장 황창익 목사의 '아산시발전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위하여', 공동회장 최순식 목사의 '국가안보와 국군장병을 위하여', 공동회장 박차영 목사의 '아기연 발전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여교역자 대표 임인순 목사의 '아산시 지도자들을 위하여' 각각 주제별 기도인도를 인도한 후 간담회를 갖고 조찬을 함께 한 후 다음 모임을 기약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행은 부대 장병들을 위해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위문품들을 전달했으며 군선교위

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장병 위문계획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귀가했다.

부대장과 간부들은 부대장실에서 차를

2024년 8월 걷기동우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 사역 감당

송정해변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걸으며 심신 단련... 스포츠선교위원회 산하 걷기동우회



설교 엄기설 목사



사회 정영진 목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결성한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정석현 목사) 산하 걷기동우회(회장 정영진 목사) 회원들은 지난 8월 13일(화) 영동제일교회(담임 김용덕 목사) 앞 바다 송정해변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걸으며

심신을 단련했다.

먼저 전임 총회장 유봉수 목사(정책위원장)를 비롯 5십여 명의 동우회 회원들은 강원도 강릉시 송정길 5-12 영동제일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한마음으로 간구했다. 이날 예배는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석현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전임부총회장 엄기설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기설 목사는 약 5:7-11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참으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따기까지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기 위해 인내하고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중간에 도태

되고 만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랑 받은 자가 되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어려움이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기도하며 감당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총무 최남성 목사의 헌금기도 후 주제별 기도시간에는 최형택 목사가 '정책위원장님과 총회를 위해', 김연옥 목사가 'WCC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문찬우 목사가 '나라의 안녕과 세계평화를 위해' 각각 주제별기도를 인도했다. 사회자의 광고 후 전임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유봉수 목사 외 회원들이 함께 송정해변 모래사장을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며 맨발로 걸으며 심신을 단련했다.



회원들은 정책위원장께서 제공한 식사를 함께하고 인근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다양한 차를 취향껏 마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 뒤 심신의 피로를 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사랑 나눔의 시간을 갖고 서로

에게 힘을 북돋웠으며 복음성이 부르기 대회를 갖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서로 격려했으며 점수 순에 따라 귀한 상품도 선물로 받아 기쁜 마음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귀가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다수국민의 눈높이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는 왜곡된 대한민국 인권역사에 서광이 비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여 PC주의가 만연한 세계인권 흐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UN의 외압과 사법적극주의에 의해 곡해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분을 느껴왔다.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반국민의 보편상식이 UN의 사주를 받는 인권위와 언론방송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때마다 대한민국이 마치 UN의 속국인 것 같은 비참함을 경험했다. 이는 인권위가 과거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처럼 앞잡이노릇을 해왔고, 언론방송이 부역(附逆)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헌법 제1조에 명문화돼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의 원천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는지 의문이고, 올바르게 권한을 행사해왔는지 회의스러울 뿐이다. 2001년 5월 24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이며, 헌법기관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인권위가 UN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여 초헌법기관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이익, 국민상식에 반하는 권고 조치를 남발해온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건 비극이다.

특히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추진하여 체결한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모든 언론방송 보도를 통제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 인권보도준칙은 형식적으론 자율적 규제이자 간접적 규제에 해당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게 됨으로 오히려 다수국민의 인권이 침해받게 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억압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전국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특정 후보자들을 향해 명백한 차별과 배제를 서슴지 않는 반인권적 시각이 가득한 '인권감수성과 경험 가진 이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하라'는 성명서에 깊은 우려를 느꼈다. 이처럼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건 대단히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기에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 그런데 국민과 괴리되고 인권위와 밀착한 언론방송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별떼처럼 달려들어 온갖 비난 섞인 악의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타락한 언론방송의 악의적이며 선정적인 마녀사냥식 보도행태에 불과하다.

우리는 PC주의(정치적 올바름)와 어퍼머티브액션(A.A., 소수집단우대정책)에 경도되고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난 국가인권위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로(正路)로 회귀하길 바라며 이를 가장 적합히 수행할 인물이 안창호 후보자라고 믿기에 적극 지지한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특정 소수집단만을 중시하고 다수국민을 배제시켜온 편향성과 이중성(二重性)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권고조치를 일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앉히려는 독선적 태도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다수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상식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로부터 괴리된 국가기관은 마땅히 폐지해야 하는 게 정답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과 3항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고, 제30조에서는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권을 앞세우는 사람들, 심지어 UN까지 이를 어기고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탄압하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혈안이 돼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인권의식이다. 이는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파괴하고 짓밟으려는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반인권적이기에 극히 경계해야 한다

안창호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보편인권을 수호하는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기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배제의 시각으로 비난해선 안된다. 헌법재판관은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법조계에서도 최상위 실력을 가진 이들이 임명되기에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자격시비는 편향된 정치이념에 의한 마구잡이 비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맞게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휘할 최적의 인사를임을 재차 강조한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전체주의 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획책하고 노골적인 동성애 지지 활동을 함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며, 에이즈 감염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물론 국민주권을 훼손해왔는데, 이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지지하는 부당한 활동을 종결시키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인물임을 믿기에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성숙한 인권의식에 의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일부 언론방송의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무자비한 차별과 배제의 기사들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훼손하며 UN의 나팔수로 일관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불가능할 경우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국민 동의 없이 체결해 반헌법적 역차별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하며 다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인신공격성 기사, 무력시위에 대해 맞대응하여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 8. 15

●주최 :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진평연, 제자광성교회, 에스더기도운동, 건강한국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문의 :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 010-5393-1981

●참여단체 :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건강한국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가평기독교총연합회,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과천시기독교총연합회, 광명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총연합회, 구리시기독교총연합회, 군포시기독교총연합회, 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 안성시기독교총연합회, 안양시기독교총연합회, 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양평기독교총연합회, 여주시기독교총연합회, 연천군기독교총연합회, 오산시기독교총연합회,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의왕시기독교총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총연합회, 이천시기독교총연합회, 파주시기독교총연합회,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 포천시기독교총연합회, 하남시기독교총연합회, 화성시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정직운동본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광역시도약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제자광성교회, GMW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교회 반동성애교단연합,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옴은가치시민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가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교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국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옴은학부모연합, 교육맘톡,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국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1,200개 시민단체

후원 : 농협 301-0310-9162-21 (예금주 :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https://sugichong.or.kr>

8·15 광복절 79주년 국가기도회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열려

말씀중심의 한국교회로 거듭나길...저출산 극복, 안보강화, 평화통일



이광용 목사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이하 예장총연)는 8.15 광복절 79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기독교교회와 2층 대강당에서 8.15국가기도회 및 특별세미나를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복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든든한 안보로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과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WCC와 로마 가톨릭과 결합하여 한국교회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 변질시킨 폐악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 기도했다.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예배는 예장총회 총회장 김화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국가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통성기도 한 후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대회사로 시작되었다.

이광용 목사는 대회사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로 인해 분열된 역사를 가져 왔으며, 예장총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숨 걸고 사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살피고 말씀중심의 한국교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법인이사 원동인 목사의 대표기도, 법인이사 서영진 목사의 성경봉독, 예장합동보수 총회 이강수 목사의 특별연주, 예장합동전국연합 총회 임원일동의 찬양, 예장총연 고문 예영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예영수 목사는 마 4:23-25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부흥운동 방법’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인간의 전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과 육신과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리고 천국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천국 백성의 삶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만은 아니다.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육신과 물질적으로 돌보셨다. 이것이 교회에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균형적인 믿음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런 균형 잡힌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먼저는 영혼이 온전히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다음에는 현실적인 것이 우선시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바르게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주님의 뜻대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이

끌어가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계속해서 특별기도로 ‘대한민국과 남북통일을 위해’, ‘대통령과 정계 지도자들을 위해’, ‘국가안보와 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저출산 해결 및 사회 도덕 윤리 회복을 위해’, ‘WCC와 종교다원주의 및 이단들의 폐망을 위해’, ‘한국교회 말씀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해’, ‘(사)예장총연과 본 대회 국가기도회를 위해’ 박대규 목사, 권혁은 목사, 이종태 목사, 홍혁기 목사, 차요한 목사, 오선미 목사, 하석수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예장총연 고문 김원식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예장보수합동총회원들의 헌금잔송, 법인이사 김순중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2부 순서로 진행된 세미나는 북한초등학교 교장 김상돈 장로의 인도로 시작되어 예장보수합동 총회 오성춘 목사의 기도 후 세미나 강사인 침례신학대학 전 이사장인 오관석 목사의 ‘응답의 불을 받으려면’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이어져 어린이가 같은 신앙으로 말씀 그대로를 내 것으로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하여서 성령으로 충만 받고 응답의 불을 체험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예장총연은 이날 서기 김영복 목사의 인도로 결의문 발표를 통해 8.15 광복 79주년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또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것과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한 국론분열을 화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갈 것과 정부의 사회안전망구축, 한반도의 평화추진, 기독교가 아닌 가톨릭과의 신앙일치를 도모하는 한국교회의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지도자들의 대오각성 등을 촉구했으며 남북평화 통일과 저출산 극복, 대한민국을 위해 에스더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결의했다.



한보연·우파총연합 공명선거 쟁취 국민대회 개최

공명선거 확립·중앙선관위 해체·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해산



박만수 목사

한국교회 보수연합과 자유 우파총연합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등이 주관한 ‘공명선거 쟁취 총괄대회’가 지난 8월 15일(목) 광복절을 맞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상여를 앞세운 행진을 통해 지난 총선이 철저한 부정선거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이 함께 바로잡자고 호소했다.

또한, 주최측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선거를 조작해 온 중앙선관위와 가짜 뉴스와 편향 보도로 대중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방송, 탄핵밖에 모르는 입법부, 좌편향 정치이념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선관위의 정상화와 사법부의 정상화 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는 공명선거 확립·중앙선관위 해체·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해산 등을 주제로 범국민연대가 상여 행진을 이끌었다. 먼저 이날 행진은 시청역 앞 행사장을 출발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과 남영역 그리고 대통령실이 소재하고 있는 용산 삼각지역까지 이어졌다.

행진이 이어지는 동안 참가자들은 거리에 선 시민들에게 전달한 전단을 통해 공명한 선거가 이뤄지지 못한 선거의 폐해와 더불어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부정선거에

단호한 입장을 함께 할 것을 요청했다.

용산 삼각지역에 도착한 행진대열은 이곳에 문화행사과 주요 참석자들의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하나가 되자고 호소했다.

문화행사는 이승현 배우의 사회,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부채춤, 발레, 장구춤에 이어 류제리 교수가 이끄는 연합공연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행사로 진행된 집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박만수 한보연 대표회장, 민경욱 전 의원, 이니영 탈북여성인권 협의회 대표가 등단 강연을 했으며 김병태 ROTC 회장과 고교연합 오석린 회장이 함께 낭독한 성명서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만수 대표회장은 강연을 통해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으며, 국민이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 이 어려운 시기에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목사가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년간에 걸친 선거부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금의 이 혼란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 미래세대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물려주지 말아야 하며 힘들지만 우리가 이 일을 잘 해결한다면 우리 미래세대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김병태 ROTC 회장과 고교연합 오석린 회장이 함께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4 전국여교역자국 추계수련회 및 아우회

| 일시 | 2024년 9월 26일(목) ~ 9월 28일(토) 2박3일

| 장소 | 부산 순복음주찬미교회 외 2개 교회

부산 순복음주찬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
부산 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호
(051-867-1615)

| 참석대상 | 전국여교역자

| 문 의 | 재정부장 최정희 목사 (010-7592-5575)

행정부장 김찬애 목사 (010-3568-2384)

|참가비| 2만원

|계좌번호| 농협 356-1626-0870-93(조영란)

*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위원장 조영란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영준 목사
갈릴리온소망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전임국장 탁정신 목사
은선교회



직전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국장 조영란 목사
일산별교회

조 직

임원단

전국지부

장

예배부장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복지부장



진리사랑교회
이복순 목사

봉사부장



군업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홍보부장



대전대회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행정부장



추계교회
김찬애 목사

행사부장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은혜와사랑의교회
조은혜 목사

서울중앙지부



예수왕교회
정에스더 목사

서울강남지부



순복음사랑교회
이현욱 목사

서울남서지부



주사랑 순복음교회
이주안 목사

경기지부



은누리순복음교회
최궁자 목사

경기중앙지부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경기남서지부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표현자 목사

경기북지부



예수사랑교회
예정희 목사

경기남지부



반석샘교회
배길선 목사

일산지부



늘함복한교회
신중연 목사

대전지부



대전지부

충북지부



충북지부

충남지부



충남지부

청주지부



청주지부

경남지부



경남지부

영남동지부



영남동지부

부산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



광주지부

호남지부



호남지부

은진지부



은진지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조영란 목사

“간행물윤리위, ‘항문성교’가 청소년에 유해하지 않다?”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 국민권익위에 ‘명확한 조사’ 촉구

음란성 논란의 초·중·고 성교육 도서 66권에 대해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학부모·교사 및 시민단체들이 지난 8월 16일 (금)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명확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FIRSTKorea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및 전국 67개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날 “66권의 도서는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서 청소년이 아무런 제재조차 없이 열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변실금은 물론 에이즈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항문성교의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관념을 해친다”며 “항문 섹스를 이론적으로 검증된 성행위 방법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고, 의사들이 허용하는 성행위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자체 확인 결과 이들 도서 중 대

부분은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의 총 개수가 60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이어 “현 간행물윤리위원회 구성을 볼 때 연령별 유해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라는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도서가 초등학교생에게 유해함을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궤변을 기반으로 판정하였다”며 “‘술 마시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우스갯소리에 비견되는 타당성 없는 판정”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국민권익위는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복합 고충민원에 속한 본 건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2조에 따른 우선 처리 고충민원임을 적시하고 최우선 처리하라”고 했다.

7월 한 달간 전국 4개 교회 생명나눔예배

장기기증운동본부, 창립주일을 나눔예배로 생명나눔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는 7월 한 달간, 전국 4개 교회에서 창립주일을 기념해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총 337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수색감리교회(김포세 담임목사)는 창립 112주년을 맞아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1912년 7월 5일, 일제 강점기의 수난 속에서도 굳건한 복음의 뿌리를 내려온 수색감리교회는 이날 창립주일과 맥추감사주일을 맞아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

수색감리교회는 2006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현재까지 이번 161명 포함, 총 249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생명나눔 사역에 동역하고 있다.

이어 7월 21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명성제1교회(신광호 담임목사)에서도 창립 20주년을 맞



아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신 목사는 “우리 모두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여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생명을 살리는 기쁨에 함께하고자 결심한 85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희망

을 나누었다. 200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생명나눔예배를 드린 명성제1교회는 총 195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약속하며 장기부전 환자들을 섬기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창립 90주년을 맞은 광탄교회(최진우 담임목사)도 올해 처음으로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창립주일을 기념했으며, 창립 72주년을 맞은 문래동감리교회(최호찬 담임목사) 또한 2002년에 이어 두 번째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생명나눔의 빛을 밝혔다. 또한 청파중앙교회, 동성교회, 변동제일교회도 다가오는 창립기념 주일을 맞아 생명나눔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창립주일을 기념하며 생명을 구하는 귀한 사역에 앞장서 준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의 약속을 통해 더 많은 이웃이 하루빨리 생명의 빛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러, 우크라 점령지서 기독교 박해 심각”

지도자들 고문·실종·살해당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에서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박해 감시단체 ‘릴리스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은 최근 이에 대한 보도를 통해 “적대 행위 규모가 소련 시대의 억압을 연상시키며, 투옥·고문·살인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는 기독교인 설교자 에두아르트 차로프(Eduard Charov·53)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 내전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크라이나에 살인을 저지르러 가셨는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전쟁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한 지도자는 투옥됐으며, 이 같은 견해를 공유하는 교회는 철거 또는 다른 형태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멜리토폴 출신인 올레나(Olena)라는 이름의 한 기독교인 여성은 기도모임에서 한 발언으로 도네츠크에서 수감 중이다. 그녀는 8월 15일 러시아군에 대해 고의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8.15여 비상하라

앞산에 장중함이어 세월의 무게를 머리에 이었는가. 대지여 입을 벌려 희망을 노래하라. 신천초목이여 청라의 묵정으로 천지에 화답하라.

아, 감격의 8.15여! 그대의 숨결 있기에 칠천오백만의 맥박이 있고 그대의 환한 고동소리에 울림의 기상 되리라.

아, 타질듯 한 대한의 심장이여! 예수의 비전으로 도전하라. 아, 자유대한민국이여! 저 푸른 바다 오대양 넘어 비상하라. 아, 나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이여! 저 끝없는 별관 광활한 육대주 건너 도약하라.

대한의 빛 내일의 찬란한 꿈이여. 제4차 문화 산업의 깃발을 드높이 세워 부국강병, 문화대국의 전열 가다듬자.

아 거룩한 예수 생명, 한국교회여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아 그리스도의 몸이여 군세해 일어나라. 아들의 권세 결박하고 세계복음화 깃발 높이 들자.

기억하라 그대 8.15여 복녔 땅 내 동포들을, 한국교회여 통곡하라 지교회와 내 형제를 위해. 오 주여, 사랑하는 복녔 땅 옛적 고도의 땅 부디 복음의 전당으로 새롭게 창조해주소서. 슬프고도 아름다운 땅 함께 울고 웃도록 오 주여 그날을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가족세트전도 총재 박영수 목사는 통일이 되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리라. 복녔 땅 내동포 위해 돌진. 영혼구원 위해 돌진. 목숨걸고 돌진 하리라—라고 거듭 강조 한다.

작곡에 이르러 가족세트전도는 한국강토뿐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돌진, 목숨걸고 돌진. 오늘도 돌진! 내일도 돌진! 한국교회복음화 위하여, 세계선교복음화 위하여, 돌진! 돌진! 돌진!——

가족세트전도 총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1)폐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현)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간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나와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라는 말보다 '우리' 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합니다. '나' 라는 말을 사용하면 너무 인색해 보이기에 '우리' 를 사용하는가 봅니다. 우리 나라,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고향, 우리 교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말에 '우리' 를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 혹은 '우리 남편' 등의 말은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우리' 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어쩌면 '나' 를 붙이면 너무 깽쟁이처럼 보일까 봐 '우리' 를 붙여서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나' 의 발달은 개인주의의 발달로 보입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양인들은 '우리' 와 '나' 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들의 사고(Thinking)로 보면 '나' 와 '우리' 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 와 '내 남편' 이 옳지 '우리' 는 전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의 어법보다는 의미의 중요성에 무게를 둡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는 남을,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나보다는 가정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보다는 '내' 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

다. 햄버거와 콜라, 피자에 맛들고 재즈와 록 음악에 물들더니 '우리' 를 던져버리고 나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성과 개인주의가 앞서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개인주의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가 앞서는 마음들은 '우리' 를 어렵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 만 잘되고 '나' 만 아무 일 없으면 그만이지 남들이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쯤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 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경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내 돈 내가 쓴다' 고 뽕뽕해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나' 를 찾아야지 독립된 존재 중에서는 언제나 '나' 혼자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나' 와 '네' 가 만나고 합하여 '우리' 가 되어야 합니다. 너의 아픈 일이 나와 나 곧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너' 의 기쁨이 '우리' 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답게~ 답게~

답게라는 그말은 기분 좋은 말.
모자람도 넘치지도 않는 상태.
그 자리를 지키는 일 쉽지 않은 일.
은혜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네.

불순물 진흙덩이로 나를 만드사
내 영혼 깊은 곳에 생기 넣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사랑의 흔적 남겨 주셨네.

이 더운 폭염의 날씨에
가녀린 들꽃은 자기자리 지키며
생명 위한 일을 하는데
“너는 요즘 어때니?”

주의 자녀답게...
사랑 받는 자답게...

구원 받은 자답게...
약속 받은 자답게...
살아갈 책임 있는거 너는 알지?
말씀 듣는 내게 오서 묻고 계시네.....

두근두근 설레는 이 마음
성령님 노크 하실 때 느끼는 나만의 체험.
말씀 들을 때 뜨거웠지만 나는 좋았네.
들풀처럼 나의 할 일 알게 되어서...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구역장 기도회 때 전도사님의 말씀 들을 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각오를 넣어 주셨다.
(고전 15:58)을 생각나게 하신다.

사설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스프링북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다. 1인 체제, 1극 체제라는 거대 야당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착잡하다. 국민들이 한때 사랑했던 본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괴물처럼 변해버린 거대 야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여러 감정을 느끼고 있다. 안타까움과 우려가 겹치는 감정들이다. 참 절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지지율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36%, 더불어민주당은 25%로 주저앉았다. 그런데도 아랑곳 않는다. 탄핵당으로 변해 버린 거대 야당은 국회 역사 이래 최대 빌런이라는 정청래 법사위 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온갖 무례와 불법행위들을 보면서 안하무인도 저런 안하무인은 없다는 생각에 입맛이 별로다.

저들의 행위를 일일이 지적할 필요도 없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일이다. 이성을 잃었다고 할 밖에 없다. 목적이 두 가지다. 사법 리스크에 걸린 이재명 방탄과 정권 탈취다.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뽑은 대통령을 걸뒀다면 탄핵하겠다고 온 화력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 단독 통과 필리버스터 거부권 재의결부결 또 다시 단독 통과...이런 소모전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국회를 제정신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바보들의 행진' 을 멈춰야 한다며 국회 사회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도 제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 통과, 거부권, 재의결 부결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의 단독 통과, 거부권,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그래도 야당에서는 통과 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어떻게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몽니를 부리는 몽니당이 돼 버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생각난 게 '스프링북의 비극' 이라는 게 생각이 난 것이다. 스프링북(Springbok)은 수천 마리가 무리를 이루며 시속 88km로 달릴 수 있는 아프리카 영양의 일종이다. 스프링북은 신선한 풀을 찾아 수시로 이동하는데 문제는 수천 마리가 무리 지어 사는 데서 발생한다. 선두 그룹은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지만 뒤쪽은 더 이상 풀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기에는 풀이 많아 평화롭지만 풀이 부족한 건기가 되면 애기가 달라진다. 이때부터 이들은 자신들의

장기인 달리기로 극한의 속도 경쟁을 벌인다. 누군가 선두를 위해 달리기 시작하면 모두 광란의 질주를 시작한다. 그 질주의 끝은 절벽에 이르러야 끝이 난다. 눈앞에 절벽이 나타난다고 질주가 멈출까? 가속도가 붙은 질주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

다. 모두 낭떠러지로 추락해야 질주는 끝이 난다. 스프링북의 비극은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서지만, 본래의 목적을 잊은 의미 없는 경쟁은 공멸로 다가온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전면전이 벌어진 국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는 그는 법사위원장에 기용되자마자 법사위를 화약 연기 자욱한 정권 공격의 전투 현장으로 만들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가 끝나자마자 '당신 맘대로는 안될걸! 5년은 금방 지나가' 라고 한 장본인이다. 국회 상임위를 탄핵 분위기 띄우고 검찰 압박하는 무대로 활용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거침없는 폭주 때문에 일방적 회의 운영으로 법사위를 매번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증인을 조롱하고 비아냥 거리고 인격을 후벼 파는가 하면 동료 의원들에게까지 독설을 퍼부으며 완강한 빌런(악당)이 된 것이다.

증인이 반박하면 '토 달지 말고' 라고 하고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냐' 고 막말을 퍼붓는다. 10분간 퇴장하라는 말도 한다. 교사가 초등학생 벌주는 것처럼 증인들을 막대한다. 심지어는 전 국방장관에게도 그렇게 하고, 군대도 안 다녀온 사람이 제복 입은 사단장을 향해 '사단이 그렇게 대단하냐' 라면서 10분간 퇴장하라는 말도 한다.

무식하고 무례하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이 없다. 유치하고 치졸하다. 정청래의 폭주에 개발들은 환호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악당 이미지를 떠올린다. 지금껏 보지 못한 국회 빌런이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골 3:5-8)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관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3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3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4년 9월 12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8월 30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영 준
총 무 목사 오 세 준